

< 성경 칼럼 : 요한복음 열다섯번째 >

2 월에 멈춘 요한복음을 다시 펼쳐본다.

발목을 다친 후 회복에 전념하느라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이제 발목도 좋아지고.. 메모리알 연휴도 지나니.. 벌써 6 월이다. 시간이 어찌 이리도 빨리 갈까..? 늘 마음엔 두고 있었지만 요한복음 칼럼을 다시 돌춰보니.. 13 장에서 멈췄다. 오늘 14 장을 차분한 마음으로 앉아 읽다보니.. 내 영혼에 스며드는 궁금증에 내 마음이 들뜨다.

예수님은 14 장에서 자신이 제자들 곁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 마음이 불안해진 제자들을 향해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사뭇 의아한 말씀을 하셨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2,3)

내가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거처' 에 대한 것이다. 나는 오랜동안 '거처' 를 어떤 장소로 이해했다. 흔히 생각하듯 예수님께서 '재림' 하신 후에 신자들을 하나님이 계신 '천국' 이란 장소로 데려가신다는 그런 견해말이다. (물론 거처를 천국으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고 하셨다. (4) 어떻게 알고 있다는 걸까? 도마와 빌립이 당혹해하며 질문들을 던졌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5,8) 여기서 말씀하신 제자들이 알고 있다는 '그 길' 그러나 정작 제자들은 모르겠다는 '그 길' 은 어떤 길일까? 당신은 정말 알겠는가? '그 길' 이란 천국을 향하는 길? 정말 그런가? 다시 깊이 성경을 들여다 보자!

'그 길' 을 어떤 정해진 장소를 향한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결론은 이미 정해졌다. '천국' 으로 가는 길 밖에는 없지 않은가?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다' 하셨다. 그러니 장소를 향한 '그 길' 은 분명히 '천국' 이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천국에 내 거처가 마련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후 예수님께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를 알았고 보았다' 고 하셨다. (7) 물론 4 절까지와 5 절 이하를 따로 떼어 이해하면 문제는 간단 할수있다. 그러나 문맥 상으로 볼때 연결 된 것이 분명하다. 포인트는 이거다. 기독교 신앙의 결론을 어떤 장소를 향해 가는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면.. '그 길' 을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저 멀리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으로만 들려면 '그 길' 을 그곳으로 가는 길로 받아 들여야만 할거다. 난 그렇게 받아 들이고 싶지 않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을때 그뜻은 이미 자신을 알고 본 제자들이 그 길에 이르렀고 그 진리를 알았고 그 생명을 소유했다는 뜻으로 보고싶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 되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 되었음을 밝힌거다. 비록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말이다. 진리란 내가 깨달았을때 진리가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너희가 알았다고 말씀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진리란? 그 진리가 나를 품을때 이미 내가 진리안에 있게 되어 깨달을 수는 있는것이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고 반문해야 한다. 예수님은 그 경우를 바로 '내안에 그가 계시고 그안에 내가 있다' 는 것으로 말씀하신다. (10,11)

그러므로 필자의 생각엔 '그 길' 은 장소가 아니라 (헬라이어 문자적으로 거쳐 라고 해도) 영적으로는 관계회복을 뜻한다.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신 삼위일체 안에 있다는것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 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와의 관계회복으로서의 '길', 그 회복의 주체이신 성자로서의 '진리' 그리고 그 관계회복의 실체인 '생명'이 성령을 통해 주어지고 연결되어 되었다는 뜻이다.

기독교는 어디를 향해 최종적으로 가야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 되어 질수는 있어도.. '그 길' 은 내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와 더불어 살아 가는 '길' 이다. 그분이 그 진리가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혹 바다 깊은 곳.. 혹 지옥에 떨어진들 사망과 어두움이 나를 삼킬수 있겠는가? 그러니 어디를 향해 가려하지 말고 내안으로 들어 오면 된다. 당신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밖에서 허우적 대지 말고 내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라! 그것이 기독교다. 아멘..!